

고흥서 '찬란한 전설 천경자, 탄생 100주년' 특별전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
천경자 화백 예술혼 담긴 작품
유품·아카이브 등 160점 전시
김정희 교수 예술총감독 맡아

고흥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고 천경자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획 전시가 고흥에서 열리고 있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찬란한 전설 천경자' 개막식이 지난 11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 공영민 고흥군수, 류제동 고흥군의회 의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과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장 등 다양한 미술계·문화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교수가 예술총감독을 맡아 천경자 화백의 채색화, 드로잉, 영상, 사진, 친필 편지 등 다양한 작품과 자료를 통해 천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총 3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주제전시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특별전시는 고흥아트센터, 연계 전시는 남포미술관에서 각각 열린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탱고가 흐르는 황혼 △만선 △하운 △굴비를 든 남자 △아이누 여인 △팬지 △길레옌니



고흥군은 지난 11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고(故)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찬란한 전설 천경자' 개막식을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정 △파리시절 누드 유화 등 채색화 29점, 드로잉 23점, 화선지에 먹 6점, 아카이브 102점 등 총 160점을 전시된다. 천 화백의 대표작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과 유품을 최초로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흥아트센터에서는 특별전시 '천경자를 기리고 그리다'가 열리며, 천경자 화백의 초상과 작품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청년 작가 82인의 공모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남포미술관에서는 '색채의 향연'이라는 연계 전시가 진행되며, 천경자 화백의 제자와 국내 채색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천경자 작가의 채색화와 드로잉 작품을 재해석한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도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고흥아트센터에서 함께 선보인다. 천 화백의 작품에서 중요한 테마인 '고흥의 바다와 자연', '여성상'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역동적이고 몰입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관람객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시각적, 입체적, 청각적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연출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천경자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사의 큰 별로, 천 화백의 작품에서 묻어나는 독창적인 색채와 강렬한 감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천경자 화백의 예술적 세계를 함께 느끼

고 천 화백의 작품이 주는 깊은 감동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희 예술총감독은 "화가 천경자는 독창적인 화풍과 솔직한 글, 그리고 용기 있는 삶으로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 선구자적 예술가였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움을 남기고 떠났다"며 "이 특별전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간직한 그리움과 아쉬움에 대한 응답이다"고 전시의 의의를 밝혔다.

전시는 12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5시이다.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최우수상 여수시이순신도서관

여수시이순신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도서관을 선정하는 '2024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도 48개 시·군립 공공도서관을 A·B그룹으로 나눠 도서 서비스, 장서 보유 현황, 시설 공간 활용도 등 7개 항목과 12개 지표를 종합해 점수를 산출했으며, 이순신도서관은 두 그룹 중 가장 높은 점수로 1위에 올랐다.

이순신도서관은 약 11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2000여명에 이르며,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4차 산업 교육',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등 다양한 독서 장려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인문학 강연회, 시민 책 쓰기 '어쩌다 작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인문학 확산에 기여해 평가 항목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이순신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에 시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며 "도서관이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다양한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보성군이 추진하는 민선 7기 및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순항 중인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은 노년층의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해 실명 예방과 시력 보호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민선 8기에 들어선 2024년까지 약 6년간 총 797명에게 1390만(眼)을 지원 완료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총 297명에게 518만(眼), 의료비 1억1700여만원을 지원했다. 50여 명은 수술 대기 중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 수 62.2%(185명→297명), 의료비 62.3%(7300만원→1억1700만원)가 눈에 띄게 증가해 예산액 1억2000만원을 조기 소진했으며,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군은 이 사업의 인기에 부응하고자 2023년 9월부터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도왔다.

신청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희망자는 안과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지참해 수술 전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의료비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그동안 일상생활의 불편을 참아왔지만 보성군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으로 시력을 회복하고 정말 살맛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 사회복지분야 3관왕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0월에도 두 차례의 수상으로 2024년 사회복지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

광양시는 지난 6일과 7일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15회 광주·전남 사회공헌대축전 웰드비전회장상과 제10회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년 운영세칙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민관 합동 일제 조사의 일환으로 위기가구 조사 및 집중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원룸, 모텔 등 주거밀집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위기가구 신고 홍보물(2000장) 배부 활동, 은둔형 외톨이 및 위기가구 발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0월에도 두 차례의 수상으로 2024년 사회복지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 광양시 제공

굴 연계 활동 광양읍감동지기대 활동 등을 펼쳐 복지 사각지대 발굴 6390건(2018년~2023년), 공적 급여 외 서비스 연계 65건, 민간자원 연계 1160건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까지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광양읍

10개 특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으로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잠재된 복지자원 발굴, 다양한 위기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제20회 벌교꼬막축제 꼬막 경매 대금 기부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열린 '제20회 벌교꼬막축제 꼬막 경매행사'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보성군연합회에서 꼬막 경매 대금 75만6000원을 벌교읍에 기탁했다.

'꼬막 경매행사'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보성군연합회는 잡꼬막 20kg, 새꼬막 40kg, 피꼬막 40kg을 경매에 부쳤으며, 총 75만6000원에 낙찰됐다.

이번 경매 대금은 벌교 꼬막을 시중가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경매를



진행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화와 연계해 기부금이 사용될 예정

송민섭 기자



표고버섯 신품종 시범농가 간담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7일 지역특화 표고버섯 신품종으로 개발한 '흥화1·2호'의 시범농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흥화1·2호의 시범재배 성과와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재배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흥화1·2호는 기후변화, 외래품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지역 맞춤형 원목 표고 신품종으로 16개 농가에서 5600본을 시범재배 중이다.

간담회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서 흥화1·2호의 시범성과를 보고하고, 장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비로 확보한 장흥표고버섯 안정생산 스마트화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한 흥화1·2호의 재배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해 시범농가와 심도 있는 토의도 가졌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개발한 원목표고 신품종인 흥화1·2호가 조기 정착되고 차별화 육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이달 19일 흥화1·2호의 시범성과에 대해 재배 농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보고회도 가질 예정이다.

장흥=김전환 기자